

지난달 은행 주담대 4.7조 ↑...2월 기준 역대 세번째 증가폭

신용대출은 2.7조 감소...은행권 가계대출 2조 늘어 11개월째 증가 전 금융권 가계대출 1.8조 ↓, 11개월 만에 감소...2금융권 3.8조 ↓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약 5조원 가까이 또 늘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와 직결된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만에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4월(+2조3000억원) 반등한 뒤 11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60조원)이 4조7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으로는 해당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2020년(+7.8조원)과 2021년(+6.5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9조1000억원)은 2조7000억원 뒷걸음쳤다. 대출자들이 명절 상여금 등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시장총괄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와 2월 영입일 감소 등으로 증가 규모는 1월 4조9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도 갈아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은 주택경기 방향, 정부의 (대출 관련) 지원·규제 정책, 금리 수준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돼있다"며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당분간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는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지난달 1조8000억원 줄었다. 작년 3월(-6.5조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7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이 1월(+4조1000억원)보다는 줄었고, 기타대출(-5조5000억원)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2조원 늘고 2금융권에서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상호금융(-3조원), 보험(-6000억원) 등에서 대출 감소 현상이 뚜렷했다. 한은은 2금융권 가계대출 감소 배경에 대해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방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데, 지방 부동산 상황이 수도권과 달리 계속 나쁜 데다 금융기관들도 자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이 아닌 예금은행의 2월 기업 대출 잔액(1262조4000억원)은 한 달 새 8조원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21년(+8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3조3000억원,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 전략과 명절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예금은행의 2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26조5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32조4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3위의 수신 증가 규모다. 청년희망직급 만기 도래, 은행들의 자금 유치 노력 등의 영향으로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이 각각 24조3000억, 35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에 5조1000억원이 유입됐고, 주식·채권형 펀드도 각각 4조3000억원, 2조8000억원 늘었다. /장윤영 기자 zzang@연합뉴스

사과 10kg 도매가격 사상 첫 9만원...1년 새 123% 급등

배 15kg 도매가격은 10만원대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어 처음으로 10kg당 9만원대를 기록했다. 배 도매가격도 15kg에 10만원 선을 넘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후지·상품)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으로 1년 전(4만1060원)보다 123.3%나 올랐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1월 17일(9만740원) 사

상 처음으로 9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이후에는 9만원 선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이달 6일(9만1120원)부터는 9만원 선을 계속 웃도는 중이다. 배(신고·상품) 도매가격은 전날 15kg당 10만3600원으로 10만원대를 보였다. 이달 7일 10만120원으로 2021년 8월 19일(10만1000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10만원 선을 넘어섰고 8일 9만9060원, 11일 10만60원에 이어

전날 10만3000대까지 상승했다. 도매가격은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공인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중도매가격이다.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 역시 1년 전보다 가격이 꽤 올랐다. 사과 10kg당 소매가격은 전날 3만97원으로 1년 전(2만3063원) 대비 30.5% 올랐다. 평년보다는 31.0% 높다. 배 10kg당 소매가격도 전날 4만2880원으로 1년 전(2만8523원)보다 50.1% 올랐다. 평년보다는 15.9% 높은 수준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조달청 상반기 조달사업 2조6748억 집행

6월까지 조달 수수료 감경

광주지방조달청은 13일 상반기 내에 조달사업 연간 목표금액 6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열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집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조달사업 목표 금액은 4조1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6% 수준이다. 광주조달청은 이 중 65%에 해당하는 2조6748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조달청은 조달사업 신속집행 전담반을 편성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조달수수료를 할인하

고 있다. 광주조달청은 조달수수료를 4월까지 15%, 5-6월까지 5%를 감경한다. 김 청장은 이날 신속 집행 외에도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 구축 계획도 내놨다. 김 청장은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업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해의 조달시장 진출 및 국내 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조달규제' 적극 발굴 및 건의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레미콘과 아스콘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강화도 약속했다. 김중열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3일 오전 '백설기데이'(3월14일)를 맞아 우리 쌀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선 농업 광주본부와 광산구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3월 14일 사탕 대신 하얀 백설기로 마음 전하세요

농협 광주본부 '백설기데이' 행사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13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백설기데이'(3월14일)를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백설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백설기데이는 화이트데이를 대신해 백설기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쌀 소비촉진을 도모

하자는 의미로, 지난 2012년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현호 본부장, 박내춘 영업본부장, 박흥식 광주통합RPC의 장조함장, 이선학 광주통합RPC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광산구청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백설기와 장미꽃, 우리 지역 생산 쌀을 전달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3월 14일이 백설기데일로 인식돼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광주본부는 백설기데이, 오이데이 등 테마마케팅 사업을 통해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대환 대상 확대

금융위 프로그램 혜택도 강화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혜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에서 받은 금리 7% 이상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법인은 2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로 대출로 바꿔준다. 금융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

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p 추가로 경감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한전·가스·석유공사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지난해 11.9조 재무개선...목표 144% 초과

지난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높은 약 11조9000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석탄공사, 발전 5사 등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목표(8조2458억원)의 144% 수준인 11조8658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비용 절감 및 수익 확대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했다. 공기업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고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올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기술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결산에서 연료비 미수금 4179억원을 반영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회계기준원 공식 해석을 통한 것이라고 지역난방공사는 설명했다. 다만 지역난방공사는 신규 투자 및 누적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무배당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대규모 친환경 설비 교체, 장기 사용설비 안정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3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누적 결손이 3866억원에 달하면서 매년 외부 차입 및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3.57(+11.76)
↑ 코스닥	889.93(+0.22)
↓ 금리 (국고채 3년)	3.251(-0.022)
↑ 환율 (USD)	1314.50(+3.50)

삼성전자 'AI TV 시대' 선언 네오QLED·OLED TV 신제품 출시 론칭 기념행사

삼성전자는 13일 2024년형 네오(Neo) QLED TV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인공지능(AI) TV 시대'를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 TV 신제품 론칭 기념행사 '인박스 & 디스커버 2024'를 열어 제품 공식 출시를 알렸다. <사진> 2024년 네오 QLED 8K TV에는 역대 삼성 TV 프로세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3세대 AI8K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 프로세서는 전년 대비 8배 많은 512개 뉴럴 네트워크와 2배 빠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갖췄다. '8K AI 업스케일링 프로' 기능은 저해상도 영상도 8K급으로 업스케일링해 더욱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게 한다.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은



감지해 사물이나 인물 등을 분석하고 명암비를 강화하는 '명암비 강화 프로', 스포츠 종목을 자동 감지해 공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정하는 'AI 모션 강화 프로'도 지원한다. TV 사운드 기술에도 AI를 적용했다. '액티브 보이스 프로' 기능은 콘텐츠마다 다른 음량 차이를 감지하고 목소리를 분리해 증폭시킨다. 이를 통해 대화 내용이 배경음에 묻히지 않고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며, 청소기 소음 등 외부 소음도 감지해 사운드를 최적화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시장에 첫선을 보인 OLED

TV도 한 단계 진화했다. 2024년형 삼성 OLED TV는 'OLED 글레이 프리' 기술을 적용해 빛 반사를 줄여줘 낮에도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2세대 AI 4K 프로세서가 탑재돼 '4K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저해상도 영상을 4K급으로 볼 수 있다. 또 'OLED HDR 프로' 기능으로 AI가 밝기를 조절해 깊은 검은색은 유지하면서 강조해야 할 부분의 밝기를 높여 화면 대비를 극대화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